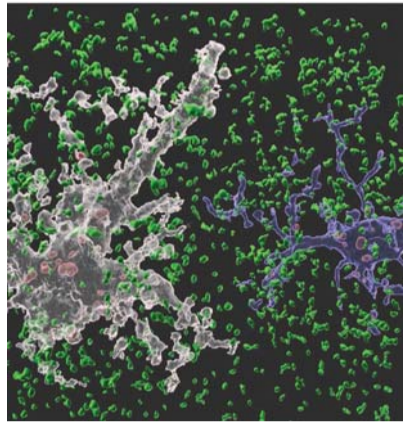


삼성이 지원한 연구로 새로운 '성인 뇌 기억' 방식 제시

자폐증·조현병 등 치료제 기대감
정원석 카이스트 교수 연구팀
미세아교세포 중점 학설 뒤집어



별아교세포와 미세아교세포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팀이 성인의 뇌가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명해 자폐증, 조현병, 치매 등 뇌 신경 질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정원석 교수 연구팀이 한국뇌연구원 박형주 박사팀과 공동으로 '성인의 뇌가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성인의 뇌에서 기억을 지우고 새로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뇌-인지과학 연구 분야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23일(현지시간) 최상위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교세포 중 가장 숫자가 많은 '별아교세포'가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에 시냅스를 제거한다는 자신들의 기존 연구



정원석 카이스트 교수. /삼성전자

결과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냅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세아교세포'보다 '별아교세포'가 활발하게 시냅스를 제거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미세아교세포에 중점을 뒀던 종전 학설을 뒤집었다. 만약 별아교세포를 억제하면 비정상적인 시냅스가 급증함

도 밝혀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것으로, 뇌 안에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별아교세포에 의한 시냅스 제거가 뇌 신경회로 기능과 기억 형성에 필수적임을 보여준 것.

연구팀은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방식을 검증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 별아교세포의 시냅스 제거 작용을 억제한 생쥐에서는 불필요한 시냅스가 제거되지 않고 또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되는데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했다.

정 교수 연구팀은 2017년 6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과제로 선정돼 연구 지원을 받아왔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신경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준 셈이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별아교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현상을 조절하게 할 수 있다면 자폐증, 조현병, 치매 등 뇌 신경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1조5000억원을 출연한 연구 지원 공익 사업이다. 기초과학과 소재, ICT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며, 최근까지 8125억원이 집행됐다.

삼성전자는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CSR 비전으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C랩 아웃사이드 등 상생 활동과 청소년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GS 편의점·슈퍼마켓서 '갓 구운 빵' 판다

GS 리테일, '브레디크' 선배
식품카테고리서 빵 소비 증가
고품질 베이커리 제공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THE FRESH)가 일상의 빵을 책임지는 빵 맛집 '브레디크'로 변신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 더프레시는 새로운 빵 브랜드 'BREADIQUE(브레디크)'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브레디크'는 브레드(빵)이란 영어 단어에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품질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뜻하는 부티크, 새로움과 특별함·독특함을 의미하는 유니크의 합성어로 하이퀄리티를 추구하는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를 의미한다.

GS리테일이 빵 전문 브랜드 '브레디

크'를 선보이는 것은 매년 신장하고 있는 빵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대해 좀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이다. GS25의 15년 이후 20년까지 빵 매출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15% 이상 신장세를 보이며 식품 카테고리 성장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국내 식품카테고리에서도 빵 소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빵 및 떡류 가계 소비 지출액은 2015년 대비 2019년 약 16.6% 신장했으며, 특히 빵은 19년 가구소득별 가공식품 지출 품목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주식, 간식으로 큰 사랑 받고 있다.

'브레디크'브랜드 출시로 GS리테일은 베이커리 전문점 수준 이상의 고품질 베이커리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은 새로운 맛과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디크'로 처음 선보이는 상품은 '브레디크 순우유식빵', '브레디크 순우유스타킹', '브레디크 순우유모닝롤', '브레디크 레몬큐브파운드' 등 총 4종이다.

GS리테일은 브레디크를 ▲식사대용 ▲포켓샌드 ▲냉장빵 ▲조리빵 ▲냉장디저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이 지금까지 맛본 베이커리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첫 상품을 출시한 후, 3월말까지 순차적으로 50여종을 선보이며,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를 손쉽게 전문점 수준 이상의 고품질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빵 맛집으로 변신 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K케미칼, 韓 릴리와 파트너십 강화

전 병원·클리닉으로 파트너십 확대

SK케미칼은 한국 릴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와 편두통 예방치료제 '엠겔러티'에 대한 파트너십을 올해 1일부터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SK케미칼은 2018년 4월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포스테오에 대한 코프로모션을 일부 세미 병원 및 클리닉에서 시작하여, 이듬해 모든 세미병원으로 영업 활동을 확대해왔다.

편두통 예방 치료제 엠겔러티는 지난해 6월부터 종합병원 마케팅 및 영업은 양사가 협력하여 수행하고, 의원은 SK케미칼이 전담하고 있었다.

SK케미칼과 한국 릴리는 그간 엠겔러티·포스테오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1월 1

일부터 엠겔러티와 포스테오 파트너십을 전 병원 및 클리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스테오는 골다공증 환자의 뼈 형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골형성촉진제이다.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포스테오는 2019년 217억원을 기록한 골형성촉진제로,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포스테오는 발매 후 19년간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골형성촉진제이다.

엠겔러티는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CGRP를 차단하여 편두통 발생을 예방한다. 엠겔러티는 2018년 첫 발매 이후 이듬해 1억6000만 달러(약 2000억원)의 전세계 매출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2019년에 출시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비와이엔블랙야크, 업계 최초 '스마트워크'

가상데스크톱 인프라 도입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의류 업계 최초로 모바일 가상데스크톱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했다.

블랙야크는 최근 새롭게 도래한 비대면 업무 시대에 발맞춰 클라우드 가상화 선도기업 킬론의 가상데스크톱(VDI) 및 모바일 가상데스크톱 인프라를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디지털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가상데스크톱은 데이터 저장 하드디스크와 응용프로그램 등을 인터넷 공간에 제공한다. 이동이 잦은 이가 외부에서도 사무실과 똑같은 컴퓨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그대로 재현해 언제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하던 작업을 인터넷의 가상 데스크톱에 올린

뒤,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가상데스크톱을 도입으로 인해 블랙야크 임직원들은 재택근무 및 외근·출장 등 외부 환경에서도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 전략, 회계 자료, 제품 디자인 등 중요 정보를 로컬 PC가 아닌 가상데스크톱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해 내부 문서의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블랙야크는 이번 인프라 도입에 앞서 업무 환경 내 온라인 역할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전환을 선언하고, 지난해 관계사인 블랙야크아이앤씨를 통해 킬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미래형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를 다년간 진행해오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라네즈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

아모레퍼시픽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라네즈가 5세대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02년 출시 후 라네즈 글로벌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은 '워터 슬리핑 마스크'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워터 슬리핑 마스크 EX에는 외부자극으로 손상 받고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주는 '슬리핑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처음 적용했다.

238여마리 프로바이오틱스 유래 성분인 녹차 유산균 발효 용해물을 담은 '프로바이오틱스 콤플렉스'는 피부 방어력을 강화시키며, 지친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꾼다. 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식물성 '스쿠알란'을 함유해 밤사이 피부 촉촉함을 유지시켜준다.

/원은미 기자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조영실 확장 운영

진단부터 시술까지 '원스톱'

이대목동병원은 5일부터 심혈관조영실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관 3층에 마련된 심혈관조영실에는 첨단 혈관조영촬영장비가 도입돼 환자 대기 시간이 단축됐을 뿐 아니라 진단부터 시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권기환 순환기내과 교수(심혈관센터장)는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센터는 긴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순환기내과 전문의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에게 동시에 연락(콜)이 이뤄지는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며 "심혈관조영실 확장과 첨단 장비 도입으로 모든 심혈관 질환 환자가 더욱 빠르게 조치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순환기내과, 흉부외과 등으로 이뤄진 전문 진료팀이 365일 24시간 당직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하



새롭게 확장한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조영실.

고 있다. 전문 진료팀에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면 즉시 수술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수술 시간 지체를 최소화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심혈관센터는 모든 경피적 카테터 시술 전후에 혈관조영과를 시행해 출혈, 박리 등 경피적 시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합병증을 최대한 예방하고 있다.

심혈관조영실에서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시술은 경피적 관동맥, 말초동맥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등을 포함하는 혈관중재시술과 부정맥 관련 시술이다. /이세경 기자